

# ‘진료비 환급절차 및 후불제’ 홍보필요

글\_ 정 석 · 감염인 / 가명

**보통 한달 정도 걸리던 진료비 환급 기간이 지난 연말과 올초 직장·지역 의료보험가입자들은 최대 6개월가량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감염인들은 올해의 일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관행으로 굳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늦어지는 환급은 감염인에게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일까?**

지난 4월 중순경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치료제를 구할 수 있느냐는 한 감염인의 전화였다.

“약이야 병원에서 타오면 되지 왜 약을 구하러 다니지?”

이렇게 묻는 나에게 그 감염인은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현재 6개월째 보건소에서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약을 복용하는 것에도 누가 보고 물어 올까봐 걱정스러운 일이었지만 치료제를 복용함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는 상당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한다.

## 선결제물 위해 카드빚을 내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의료보호 1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치료제구입과 복용에 아무런 어려움은 없지만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으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달라진다. 보건소 담당자의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진료비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적은 액수라면 어떻게 해서든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치료제의 부담금이 어느 정도인가? 최소 지도부단은 무료 제공이지만 쓰리타씨나 크력시반 등 기초적인 각테일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40~50만 원 정도 본인 선부담금이 들어간다.

그러나 가장 저가의 치료제가 아닌 중·고가의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80~90만 원 정도의 선결제가 필요하다. 모든 치료 감염인들이 다음 달 치료제 복용 시까지는 환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카드빚까지 얻어 쓴다. 그러다 지불이 늦어지면서 최근 몇 개월간 많은 감염인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치료제 환급의 연기로 여기저기 치료제를 구하는 육체적인 부담과 정기적으로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내성 등 부작용의 두려움에 더욱 고생을 했던 것이다.

치료제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후불제에 대하여도 전혀 모르고 있는 많은 감염인들에게 보건소 담당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비 및 치료제의 환급절차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건소 담당자들의 감염인들에 대한 정보 및 교육·홍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감염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시금 절실함을 느낀다. 진료비의 환급은 서울시와 보건

발병하기 전의 감염인들에게 보건소 담당자들은 보건소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많은 감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건담당 및 정부는 많은 감염인들과의 대화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이러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복지부의 주무 예산처에서 자치구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의 지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감염인들의 치료제 복용은 어려워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치료제의 꾸준한 복용은 감염인 자신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손해와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을 잃게 되면 직장 생활이나 가정생활도 힘들게 될 것이며 한 인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곁합을 가져다 줄 것이다.

#### 타과 진료시 진료비의 20%만

####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특례 적용안돼

2004년 1월부터 에이즈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되어 외래 진료비를 경감 받게 되었다.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 경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많은 감염인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제2, 제3의 합병증으로 타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이란

소견이 있음에도 진료의가 다르면 다른 환자들과 똑같이 진료가 되어 왔다.

그러므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일 년에도 여러 차례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 에이즈 감염인들은 병원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병하기 전의 감염인들에게 보건소 담당자들은 보건소의 건강검진과 치료를 많은 감염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된다면 간혹 감염인들이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잡은 보건소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신분노출 우려

그리고 담당자들의 잡은 이동은 업무의 관행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보직의 잡은 이동으로 인하여 직장의료보험이나 일반 지역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감염인들은 수시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인계의 문제로 보직 이동 시기마다 진료비의 환급이 늦어지며 다시 또 새로운 담당자와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또 그 감염인은 치료제 복용문제와 노출의 부담으로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빚을 내야 되냐?” 카드에서 돈을 빼면 다음 달은 또 고생할 것이고 남에게 빌리자니 사용처를 물어 올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건담당 및 정부는 많은 감염인들과의 대화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이러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오늘도 어느 보건소 에이즈 담당자는 진료수급영수증을 제출한 감염인에게 빚진 사람처럼 독촉전화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